분리의 경제적 결과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공동시장의 상실

분리는 1959년 산업화 전략의 토대였던 희망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싱가포르는 계획 입안자들이 1959년부터 기대해 온 약 1,200만 명 규모의 공동시장에 대한 전망을 잃었습니다. 실제 손실은 이 수치가 시사하는 것보다 작았습니다. 공동시장은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켕스위는 이미 합병 기간 중에 공동시장의 이점이 한때 자신이 믿었던 것만큼 크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1]

리콴유는 분리 당일 이 불균형을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페탈링자야에서 생산된 던롭(Dunlop) 타이어는 싱가포르에 무관세로 들어온 반면, 주롱에서 생산된 브리지스톤(Bridgestone) 타이어는 연방에서 수입 할당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구매력 기준으로 싱가포르는 인구가 4분의 1에 불과한데도 통합 시장의 약 40%를 차지했고 반도는 60%를 차지했습니다.[2] 그는 앞으로의 경제 협력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그럼에도 말라야에 대한 의존은 현실이었습니다. 리콴유는 같은 기자회견에서 이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의 추산으로는 싱가포르 교역의 약 24%가 말라야와, 추가로 4~5%가 사바 및 사라왁과 이루어졌으며, 물은 조호르에서 공급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영국군 기지에 연간 약 4억 달러가 드는 반면 싱가포르의 연간 예산은 약 1억 2,00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3] 이 수치들이 신생 국가의 경제 문제를 규정했습니다. 싱가포르는 교역과 물을 위해 이웃 나라가 필요했고, 자국 방위 비용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성장, 교역 및 실업

공식 국민계정은 그 시기의 충격을 뚜렷하게 보여 줍니다. 2015년 연쇄가격 기준으로 실질 GDP는 1963년 104억 6,350만 달러에서 1964년 101억 3,880만 달러로 약 3.1% 감소했습니다. 이후 1965년 109억 3,310만 달러, 1966년 120억 4,610만 달러로 회복되어 각각 약 7.8%와 10.2% 성장했습니다.[4] 과거의 추정치는 1964년의 감소폭을 약 4%로 보는데, 이 차이는 아마도 이후의 국민계정 개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5]

감소의 구성을 보면 대결정책이 어디를 타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계무역 상인들의 부문인 도소매업의 산출은 1963년 20억 660만 달러에서 1964년 15억 9,520만 달러로 약 5분의 1 감소했습니다. 같은 해 제조업은 13억 6,530만 달러에서 14억 770만 달러로, 금융·보험업은 2억 3,420만 달러에서 2억 5,39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상품 교역 총액은 1963년 약 77억 5,000만 달러에서 1964년 약 62억 5,000만 달러로 감소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와의 교역 중단 때문으로 분석됩니다.[6]

정부의 공식 역사 서술에 따르면 1960년부터 1965년까지 실질 GDP는 연평균 복리 5.7% 성장했습니다. 합병 기간 동안 제조업에서 약 2만 1,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실업률은 두 자릿수에 머물렀고, 빠르게 늘어나는 노동력을 마주한 정부에게 이는 걱정스러운 수치였습니다. 인구는 1965년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까지 1,886,90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분리는 경제가 대결정책의 충격에서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노동시장이 아직 젊은 인구를 흡수하지 못하던 시점에 찾아왔습니다.[7]

재정 주권

분리로 싱가포르는 과세 기반 전체를 되찾았습니다. 국세의 40%를 연방 정부에 납부하던 분담금은 부속서 J의 폐지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정부는 또한 반대해 왔던 연방 세금을 철회할 수 있었습니다. 리콴유는 1965년 8월 9일 거래세를 즉시 폐지하고, 급여세는 대체한다면 실업보험 제도를 위한 기여금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8]

재정 주권에는 새로운 부담이 따랐습니다. 싱가포르는 이제 자국의 방위와 외교 업무를 스스로 재원을 마련해야 했고, 리콴유는 그 비용을 영국군 기지 관련 수치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싱가포르는 조세 인센티브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얻었습니다. 연방 당국이 그토록 인색하게 부여했던 개척산업 지위는 이제 싱가포르 정부만의 정책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 편 제III장은 EDB가 이를 활용해 외국 제조업체를 유치한 과정을, 제IV장은 같은 자율성 덕분에 아시아달러시장(Asian Dollar Market)을 탄생시킨 1968년의 조세 감면이 가능해진 과정을 보여 줍니다.

통화 주권

분리의 가장 오래 지속된 금융상 결과는 통화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여전히 말라야·영국령 보르네오 달러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통화는 공동 통화위원회가 발행했고 2실링 4펜스로 파운드화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분리 후에는 계획된 말레이시아 통화가 싱가포르에서 외국 화폐가 될 터였습니다. 이에 싱가포르 재무장관 림킴산(Lim Kim San)은 이미 1965년 10월에 공동 통화를 제안했고, 1965년 11월 8일 탄시우신에게 서한을 보내 통화위원회 또는 공동 중앙은행 중 하나를 제안했습니다.[9]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협상의 쟁점은 준비금의 소유권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ank Negara Malaysia)은 통화위원회를 시대착오적이라며 거부하고, 싱가포르의 준비금을 별도 계정에 보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협정 초안대로라면 싱가포르는 준비금에 대해 다툼의 여지 없는 소유권과 통제권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1966년 8월 4일 림킴산은 싱가포르가 "외국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기관에 결코 준비금을 신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1966년 8월 17일 두 정부는 1967년 6월 12일부터 별도의 통화를 갖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10]

그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가 각자 자국 통화를 발행하기 시작하면서 통화동맹은 막을 내렸습니다. 통화교환협정(Currency Interchangeability Agreement)에 따라 세 통화는 액면가로 상호 교환이 가능했으나, 말레이시아가 1973년 5월 8일부로 탈퇴했습니다. 브루나이와 싱가포르는 오늘날까지 상호 교환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통화위원회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편 제V장은 그 역사를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의 설립과 함께 다룹니다. 준비금을 온전히 소유하겠다는 고집은 제D편 제I장에서 살펴보는 준비금 운용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11]

배후지에서 세계로

분리의 더 깊은 결과는 전략적인 것이었습니다. 19세기 이래 싱가포르는 처음에는 군도, 이어서 영국령 말라야라는 배후지의 항구로 살아왔습니다. 합병은 연방 헌법을 통해 그 배후지를 확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 실패로 정부는 시장, 자본, 기술을 찾아 역내를 넘어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콴유는 독립 당일 그 원칙을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는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있도록 내버려 둘 용의가 있는 세계의 모든 나라와" 교역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12] 산업화 전략도 그에 따라 바뀌었습니다. 이제 공장은 외국인 직접투자로 자금을 조달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 수출용으로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금융 부문도 같은 논리를 따랐습니다. 1968년에 창설되어 이 편 제IV장에서 살펴보는 아시아 시간대의 역외 달러 시장에는 배후지가 전혀 필요하지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안정된 통화, 신뢰할 수 있는 법체계, 그리고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지가 있는 정부였습니다. 이제 싱가포르는 이 모든 것을 홀로 통제했습니다.

주

1. SG101 (Government of Singapore), "1959–1965: Early Economic Strategies"(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합병으로 약 1,200만 명 규모의 통합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됨. SG101, "1959–1965: Early Economic Strategies"(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고켕스위의 결론을 서술하며 공동 시장의 이점이 "were not as substantial as he once believed"라고 함. ↩
2. 리콴유, 1965년 8월 9일 기자회견, 13–14면: "Dunlop tyres from Petaling Jaya come to Singapore free"; "Bridgestone tyres made in Jurong can't go to the Federation because I think there's a quota restriction"; 구매력 기준으로 "we are 40 per cent, they are 60 per cent". ↩
3. 리콴유, 1965년 8월 9일 기자회견, 2–3면: "Our water supply comes from Johore. Our trade … I think about 24 per cent – with Malaya, and about 4 to 5 per cent with Sabah and Sarawak"; 기지 비용은 "comes to about $400 million a year, and Singapore's annual budget is only about $120 million". ↩
4.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Table Builder, "Gross Domestic Product In Chained (2015) Dollars, By Industry (SSIC 2020), Annual"(표 M015721,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GDP 104억 6,350만 달러(1963년), 101억 3,880만 달러(1964년), 109억 3,310만 달러(1965년), 120억 4,610만 달러(1966년); 성장률은 저자가 계산함. ↩
5. Alvin Tan, "Konfrontasi", *BiblioAsia*, 2024년 1–3월, Cheng Siok Hwa 인용: 1964년 "GDP fell by 4 percent", 1965년에 회복. ↩
6.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표 M015721(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15년 연쇄가격 기준: 도소매업 20억 660만 달러(1963년), 15억 9,520만 달러(1964년), 16억 4,900만 달러(1965년); 제조업 10억 1,930만 달러(1960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년), 13억 6,530만 달러(1963년), 14억 770만 달러(1964년), 15억 7,360만 달러(1965년); 금융·보험업 2억 3,420만 달러(1963년), 2억 5,390만 달러(1964년), 2억 7,910만 달러(1965년). Wikipedia, "Singapore in Malaysia"(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전체 교역은 "$7.7535"(1963년)에서 "$6.2498"(1964년)로 감소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와의 교역 중단 때문으로 분석됨(이 문서의 단위 표기에는 결함이 있으며, 규모는 수십억 달러 단위임);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표 M451001("Merchandise Trade By Commodity Section, (At Current Prices), Monthly",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64년 12개월간의 상품 교역 총액 합계는 62억 5,510만 달러; 이 표는 2003년 이전 자료에 1964년에 중단된 인도네시아와의 교역이 제외되어 있다고 밝힘. ↩

7. SG101, "1959–1965: Early Economic Strategies"(sg101.gov.sg/economy/surviving-our-independence/1959-1965,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60년부터 1965년까지 실질 GDP 연평균 복리 성장률 5.7%; 제조업 일자리 약 2만 1,000개 창출; "the unemployment percentage still hovered in the double digits".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표 M810001(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65년 총인구 1,886,900명. ↩

8. 리콴유, 1965년 8월 9일 기자회견, 5면: "It is the intention of the Singapore Government to revoke the turnover tax forthwith. And, the payroll tax I think will be revoked as payroll tax", 이는 "for an unemployment insurance scheme" 기여금으로 대체될 수 있음. ↩

9. GIC, *Bold Vision*, 제2장, "Second Separation"(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말라야달러는 말라야·영국령 보르네오 통화위원회(Board of Commissioners of Currency of Malaya and British Borneo)가 발행했으며 "pegged to sterling at the rate of two shillings and four pence"; 1960년 통화협정은 각 정부가 "an 18-month notice to leave the currency board"를 할 수 있도록 함. GIC, *Bold Vision*, 제2장(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림킴산은 "as early as October 1965, just two months after separation" 공동 통화를 제기함; 1965년 11월 8일 그는 탄시우신에게 서한을 보내 통화위원회 또는 공동 중앙은행을 제안함.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10. GIC, *Bold Vision*, 제2장(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통화위원회를 "anachronistic"으로 여김; 1966년 6월 10일부터 공식 협상; 싱가포르는 "was not guaranteed indisputable ownership and control of its reserves"; 1966년 8월 4일 림킴산의 서한. GIC, *Bold Vision*, 제2장(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66년 8월 17일 두 정부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would have separate currencies from 12 June 1967"이라고 발표함. ↩

11. Wikipedia, "Malaya and British Borneo dollar"(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On 12 June 1967, the currency union came to an end"; 말라야·영국령 보르네오 달러는 1969년 1월 16일 법정통화 지위를 상실함. GIC, *Bold Vision*, 제2장(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각 통화는 "fully interchangeable at par value, in all three countries"; "The agreement lasted till 8 May 1973, when the Malaysian government opted out of it"; 브루나이와 싱가포르는 이를 "till this day" 유지함. ↩

12. 리콴유, 1965년 8월 9일 기자회견, 6면: "we ought to trade with every country in the world that is prepared to leave us alone to be ourselves".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